

구례군, 임대아파트 입주민 정신건강 관리 돕는다

‘보금자리 마음돌봄 이동상담센터’ 설치·운영

정신건강 상담 위해 전문인력 2명 배치 1:1 상담

구례군 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우울증 극복과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지난 9월 29일부터 매일 2일간 정신건강 이동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건강복지센터 접근 편의를 높이고자 임대아파트 다목적실에 ‘보금자리 마음돌봄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우울

증 선별 및 스트레스 측정 검사, 예술심리 치료사의 1:1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자살위험자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정신질환은 초기 치료시기를 놓치면 재발이나 동반질환 발생위험이 높아지지만 사회적 편견으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 지원 및 정신건강사업 수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해 있는 만큼 그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소외받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사후 관리,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홍보캠페인, 생명지킴이 양성교



육,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독거노인 정신건강돌봄사업 등을 제공

하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곡성군, 찾아가는 노인결핵 검진 호응



곡성군이 최근 찾아가는 노인결핵 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결핵 발병 고위험군 노인 시설 9개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인종사자까지 총 2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곡성군은 검진을 통해 주민들이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이뤄졌다. 거동이 불편한 고

령자들을 위해 이동검진 장비를 활용했다. 현장 검진 차량에서 대한결핵협회 본부로부터 흉부 엑스레이 영상이 전송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판독하는 방식이었다. 검사 결과 유소견자 41명에 대해서는 객담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결핵 환자 5명 중 2명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발생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과 유행 파급력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노인 결핵 검진은 결핵 조기 발견을 통해 빠르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타인에게 결핵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

곡성군 관계자는 “결핵은 초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고 발열, 체중 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으면 결핵검진 받아보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면역력이 약해 결핵이 쉽게 발병할 수 있지만 기침 등 전형적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1회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곡성=양혜영 기자

진도군, 치매 친화적 환경·안전망 구축

50여 가구, 문손잡이 교체

진도군이 치매 환자와 더불어 사는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과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9월 27일 진도군에 따르면 치매안심마을을 대상으로 최근 치매 친화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한 문손잡이 등의 교체를 완료했다.

의신면 칠전마을과 고군면 지수마을 50여 가구에 대해 봉사단체 칠우회와 함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에게 편리한 문손잡이 등을 교체했다.

신체적,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이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열쇠 분실 등의 불편으로 작동이 어려운 원형 문손잡이를 레버 형식의 문손잡이로 교체해 ‘호평’을 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설립된 진도군 치매안심센터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치매선별검사가 무료로 가능하다.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특히 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치료관리



비 지원, 조호물품제공 서비스,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발급 서비스, 치매가족과 보호자를 위한 지원 사업, 치매예방 캠페인과 인식개선 교육,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무안군 망운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독거노인 가구 대상

무안군 망운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최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복지기동대는 노후된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채희범 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해주신 복지기동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